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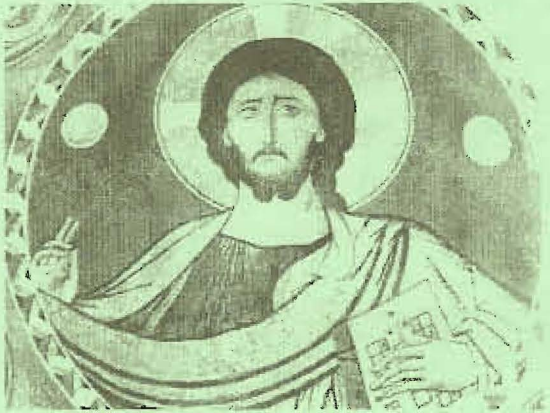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30주일(목주기도 성월/전교 주일)
제30권 48호(다해) 2010-10-24

[묵상]



전능하신 그리스도
〈12세기, 벽화, 라고데라 수도원, 키프로스〉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음을 의롭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활동은 의롭게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의로움을 위해 성전으로 향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는 바리사이는
하느님 앞에 곳곳이 서서 기도합니다.
저는 다른 죄인들과 같지 않고
할 바를 다했으니 저의 의로움은 정당합니다.
한편 멀찍이 서서 나서지도 못하는 세리는
죄인인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청원하며
자신의 가슴을 칩니다.

의로움에 대한 하느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성전을 떠나갔다고 합니다.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바리사이의 교만함이 관계를 깨뜨렸다면
세리의 겸손함이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루카-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일을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사 연락처) : (310)720-8240

수 요 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 요 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 요 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 요 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 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 행사표

수 요 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목 요 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 요 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E. Sharing(3째주) 울프레아 (4째주)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토 요 일	유아세레 (짝수달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8:00
주 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안나회/양업회 성모회/자모회 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 빈첸시오회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2:30 오전 9:00 오후 1:00

주임신부 : 이장환 파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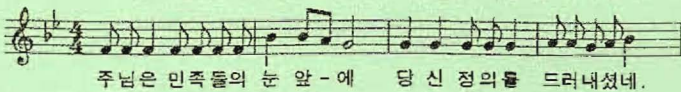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토 요 특전미사	(연)바덕기 카타리나 (생)
주 일 낮 미사	(연)홍주희 안나, 이은완 야고보, 고준희 제임스, 이현호 요한, 한병열 토마스, 서인수 요셉, 김판봉 안나, 김몽돌 요셉, 이화문 마리아, 이성서 요셉, 금석주 모이세 (생)이문오 요한 & 박외자 스텔라, 윤태덕 & 이원영 로즈마리, 김정심 크리스티나, 정정숙 율리아, 이영숙 루실라, 배기엽 클레멘스 & 배난군 세레나, 이장환 마르티노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집회서(Sirach) 35,15L-17.20-22L

화답송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들어내셨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를.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에.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노래 불러라.○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뿔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제 2독서 티모테오 2서(2 Timothy) 4,6-8.16-18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하느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복 음 루카(Luke) 18,9-14

영성체송 주님의 구원에 우리가 환호하며, 하느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리이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357	215
봉헌	269	256
성체	352	296
파견	233	236

3. 살인하지 못한다 - 하느님의 신성한 법-

▶가증할 죄악인 낙태

그러나 때로는 바로 그 어머니 자신이 낙태를 결정하고, 그 아기를 제거해 줄 것을 요구하며,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만든다. 잉태의 열매를 제거하려는 결정이 순전히 이기적이거나 편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더 중요한 가치들, 즉 산모 자신의 건강이나 다른 가족들의 생활수준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 내려질 때, 대개 그것은 어머니에게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결정이라는 것이 사실이다. 때로는 태어날 아기가 그러한 상황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두렵기 때문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유들이나 이와 유사한 이유들이 무고한 인간을 고의로 죽이는 행위를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

59). 태중의 아기를 죽이려는 결정을 어머니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내리는 경우도 많다. 그 첫 번째로 아기의 아버지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여자에게 낙태를 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경우뿐 아니라, 그 여자가 임신문제를 혼자서 처리할 수밖에 없도록 내버려둠으로써, 그러한 결정을 내리도록 간접적으로 고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정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며, 사람의 공동체로서의 본질과 "생명의 성역"으로서의 소명이 훼손된다. 때때로 넓은 의미의 가족들과 친구들로부터 오는 압박도 무시할 수 없다. 여자는 때로 낙태를 할 수밖에 없도록 심리적으로 강요되는 강한 압박을 받는다. 이 경우에 도덕적 책임은 특히 직접, 간접으로 그 여자에게 낙태를 하도록 강요한 사람들에게 있다. 생명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습득한 기술을 죽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러나 낙태법을 조장하고 승인한 입법자들도,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한, 마찬가지로 책임이 있다. 그리고 낙태를 조장하는 보건 센터의 행정 담당자들에게도 역시 책임이 있다. 일반적이면서 그에 못지 않게 심각한 문제는 성에 대한 자유방임적인 태도와 모성 존중의 결핍이 확산되도록 조장해 온 사람들에게 있다. 그리고 또한 가족들, 특히 대가족들과 특별한 재정적 교육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들을 돕는 효과적인 가정 정책과 사회 정책을 보장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끝으로, 세계적으로 낙태 입법과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국제 기구, 재단, 단체들까지 끌어들이려고 손을 뻗치는 음모의 조직망을 간파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낙태는 개인들의 책임을 넘어서는 것이며, 개인들에게 가해지는 해악을 넘어서는 것이고, 분명한 사회적 차원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를 진흥시키고 보호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의해서 사회와 그 문화에 가해지는 가장 중대한 상처이다. 본인이 「가정 교서」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생명에 대한 엄청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계속)

하느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립시다!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따라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따라야 할까요?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데, 마침 동창 신부가 선물해준 책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발견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느님의 마음 안에 닻을 내리고 하느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린다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쁜 모든 일과 마음 아픈 모든 일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나라를 선포할 기회를 제공해줍니다.”(헨리 나넌)

지난 몇십 년간 우리 교회는 양적인 측면에서 큰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TV를 보다가 신자 연예인을 봤거나 신자 정치인을 봤다고 해서 놀라워하지 않을 정도로 되었습니다. 학교나 직장이나 군부대 등에서 나만 홀로 가톨릭 신자였던 과거에 식사하기 전에 성호를 긋는것이 너무나도 쑥스러웠던 기억이 이제는 먼 나라의 이야기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사회에 신자들의 수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사회가 과거보다 더 ‘행복’하고 더 ‘공정’하고 더 ‘아름다워’지지 못하였을까요?

오히려 그보다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넘쳐나는 ‘예수님의 나라’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신자’들은 많아지는데도 어째서 이런 것일까요 고민하고 있는 나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갑자기 내면에서부터 크게 들려 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마태 28,20).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며’ 사는 ‘참’ 신자들의 수는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세례를 받아 겉으로는 ‘복음화’ 되었지만 ‘내적 복음

화’를 이룬 신자들이 애석하게도 많지 않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사회 안에서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선포해야 할 대상은 크게 볼 때 둘이 됩니다. 하나는 당연히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한 우리 전교의 열정이 식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리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내면’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교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이교인은 우리에게 세속의 가치관대로 살자고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이 사회 안에서 비교적 모나지 않고 손해 보는 일 없이 살 수 있고 또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고 우리를 세뇌시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선택하는 대신에 이 이교인의 가르침대로 살아왔습니다.

이 ‘이교인’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지상 명령입니다. 물론 이 ‘이교인’이 순순하게 항복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가 지닌 최고의 무기는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그렇게 할 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과연 손해 보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근거 없는 두려움을 우리 안에 몽게몽게 지퍼 놓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안의 ‘이교인’이 만들어낸 헛된 두려움들을 이겨내야겠습니다. 아멘.

◆신희준 루도비코 신부 /
사제평생교육원

이번 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이진향 아네스	최진수 에우세비오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신덕례 테레사	이진향 아네스
제1독서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이상철 크리스토퍼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1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김교복 레오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전지요 글라라	이희경 크리스티나	권순길 세실리아	제2독서자	이성연 크리스티나	서용숙 에스텔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1반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1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목주기도를 바칩시다.

백삼위 작은 음악회

풍성한 가을을 맞아
백삼위 가족 모두와 함께

하는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자녀들의 다재다능함, 그리고 프
로들의 수준 높은 클래식 감상, 추억이 깃든 낭만의 밴드와 함
께 운치있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 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 오늘 주일(24일) 오후4시~8시30분

● 1부(장소: 성전)

2중창(혼성), 관악 3중주(클라리넷, 오보에, 플룻),
현악 2중주(바이올린, 첼로), 관악 2중주(트럼본, 트럼
펫), 피아노 독주, 글로리아 성가대 합창,
현악 2중주와 독창(첼로, 바이올린), 독창(소프라노),
독창(테너), 글로리아 성가대와 청소년 오케스트라

● 저녁식사 (친교장, 무료제공)

● 2부(장소: 친교장)

- * 시작 연주(백삼위 밴드)
- * 구역별 노래-6개구역 및 찬조 출연
(신부님, 수녀님, 총회장 등)
- * 다함께 노래 부르기
- * 시상식

● 문의 : 대건회 회장 김용 스테파노 ☎(310)926-2248
지휘자 김정화 소화테레사 ☎(310)597-2729

◆ 유아세례 축하합니다.

10월23일(토) 오후 6시 3명의 어린이가 유아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들이 크리스천
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강나린 레아 ● 추민음 오드리 ● 추사랑 사비나

◆ 주일학교 (Lock-In)

- 목적 : 고등부 학생들의 신앙성숙 및 친교를 위함
- 대상 : 고등부 (9~12학년)
- 일시 : 10월29일(금) 오후 6시~30일(토) 오전 9시, 성당
- 신청 : 주일학교 또는 사무실(신청서 앞뒤에 부모님 서명
꼭 필요합니다)
- 등록비 : 무료(오늘 주일 마감)

● 준비물 : 목주, 슬리퍼, 베개, 세면도구

◆ 구역장/반장 회의, 일주일 앞당깁니다.

본당 신부님의 영명축일 행사 관계로 11월7일 예정된 구역
장/반장 회의를 일주일 앞당깁니다.

● 일시 : 10월31일(주일) 오후 1시 강당

◆ M.E. 제정 '사제의 달' 행사

10월은 M.E.가 정한 '사제의 달'입니다. 본당 M.E.는 신부님
을 모시고 BBQ 파티'를 갖습니다. M.E. 가족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10월31일(주일) 오후 5시30분, 친교장

● 연락 : 본당 M.E. 대표부부 김성현 유스티노 & 회연 루시아
☎(310)347-1665

◆ 11월초 미사 안내

● 모든 성인 대축일 미사 : 11월1일(월) 오후 7시30분

● 위령의 날 미사 : 11월2일(화) 오후 7시30분

◆ 남가주 여성 제32차 영어 꾸르실료 신청받습니다.

● 일시 : 11월18일(목)~21(주일)

● 장소 : 포모나 꾸르실료 하우스

● 문의 : 이명순 크리스티나 올트레아 간사 ☎(310)749-0276

◆ 서예반 제2기 회원을 초대합니다.

● 시간 : 매주 주일미사 후 2층 유아실에서 습작

● 강사 : 일호 박태홍 선생

● 문의 : 이명렬 라파엘 ☎(310)749-0278

◆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 콘서트' 티켓 판매 중!!!

주보 5면 남가주 소식란에 공지한대로 이번 주간 28일(목)
세계적인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 콘서트'가 FIAT
재단 장학기금 모금의 일환으로 열립니다. 현재 사무실에
서 티켓을 판매중에 있으니 백삼위 교우들의 많은 관심과
구입을 바랍니다.

* 티켓 가격 : \$ 35(18세 이상 성인)

\$ 25(18세 미만 학생)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10월24일(주일) : 토런스 동 1반(카레라이스 \$3)

● 10월31일(주일) : 토런스 서 3반(비빔밥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권태만	김낙기	김병학	김옥찬	김 옥	김윤진
	김재영	김준호	김현숙	김형순	노찬술	박광자
성전헌금	박진수	변복순	안태갑	오 진	유경자	육근주
미사헌금	이남현	익 명	장정진	정정현	최금옥	최재은
	최현찬	송마이클				
합계 : \$3,600						
미사헌금 : \$2,669						
성전헌금	권태만	김낙기	김병학	김 옥	김윤진	김준호
	김현숙	김형순	노찬술	박광자	변복순	안태갑
한남체인 도네이션	유경자	이남현	이일길	익 명	장정진	최재은
	최현찬					
합계 : \$2,460						
한남체인 도네이션 : \$380						

공지사항

◆ 소년 소녀 레지오 단원 모집

- 대상 : 중고등학교 학생들
- 자녀들이 레지오 활동을 통하여 본인의 성화를 이루며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 기도와 신앙활동을 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권면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최기남 야고보 푸리아 단장 ☎(310)569-3940

◆ 본당 비품은 우리 모두의 것, 관리를 잘 합시다.

주일학교/한국학교의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교실의 책상과 의자는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아주시고, 교실 사용 후 책상은 원래 놓여있던 모양대로 제자리에 놓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주일학교 수업시간 : 주일 오전 10시30분~11시45분
 * 한국학교 수업시간 : 주일 낮 12시~오후 3시

남가주 소식

◆ 성 마태오 성당 성전건립 기금마련 현유복 신부님 작품전

- 일시 : 10월28일(목)까지(22일 개막)
- 장소 : Lee & Lee 갤러리
(3130 윌셔블러바드 #502, LA)
- 문의 : 성 마태오 성당 사무실 ☎(818)951-0879

◆ FIAT 재단 '유진 박 콘서트'개최

세계적으로 유명한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의 콘서트가 피아트 재단 주최로 개최됩니다. 북미주 젊은 가톨릭 리더들을 위한 장학기금 모금을 위한 이번 콘서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10월28일(목) 오후 7시 30분
- 장소 : 성 토마스 한인천주교회
(412N. Crescent Way, Anaheim, CA 92801)
- 티켓가격 : \$35(18세이상 성인), \$25(18세미만 학생)
- 구입 : 웹사이트 www.fiat.org
- 문의전화 : (714)702-9830, e-mail concert@fiat.org

◆ 제5회 연례 병자(특히 암환자)들을 위한 치유 기도 미사

- 일시 : 10월31일(주일) 오후 3시15분
- 장소 : LA대교구 주교좌 성당(555 W. Temple St.)
- 지도 : 몬시뇰 리암 키드니
- * 문의 : 부제 마크 & 비키 레이스 ☎(323)293-4877

◆ 위령의 날 합동 미사

- 일시 : 11월13일(토) 오후 1시 30분 합동 연도, 2시 - 미사
- 장소 : Holy Cross Cemetery
- 주관 : 남가주 한인사목 사제협의회

이번 주 단체 모임

10월사목회, 작은 음악회	
----------------	--

다음 주 단체 모임

--	--

소공동체 10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씨니 클라라	(310)612-8840
차 장		박희자 마리아	(310)325-6982
차 장		이경수 헬레나	(310)972-9193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변혜경 올리아나 920-5153	남명자 데레사 920-5153 10/8(금) 오후 7시
	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박선화 안나 530-7702 10/9(토) 오후 7시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00-5612 10/15(금) 오후 8시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7-4749	정종미 클라라 377-4749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803-7798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김주량 요한 989-0366 10/8(금)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아카토 619-7763	정알베르토 791-1374 10/2(토) 오후 6시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장정진 베로니카 803-7798 10/12(화) 오전 10시30분
	4	이은록 요셉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325-6982	1	이명자 마가렛 433-9075	최경숙 수산나 433-9075 10/15(금) 오후 7시30분
	2	이경수 헬레나 972-9193	박광자 소화데레사 972-9193 10/8(금) 오전 10시30분
	3	안희경 크리스티나 750-4051	안희경 크리스티나 750-4051 10/16(토) 오후 6시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2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10/9(토) 오후 7시 강당
	3	대건회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건회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 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박홍룡 요셉 808-5005 10/9(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정훈모 바오로 377-1271 10/8(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이건영 프란치스코 377-5632 10/8(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796-6763	송준규 미카엘 796-6763 10/8(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도영옥 수산나 541-0767 10/12(화) 오전 10시30분

2010년 전교주일 교화 담화문(下)

“진정한 성찬의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교회의 천교는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
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선
포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
게 다가가서서 천교를 맺
으시고, 거기에서 성부와
성령께서 인간과 맺으시는
천교도 이루십니다(1요한
1,3 참조).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과 인간의 새로운
관계를 이루어주십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은 사
랑이십니다.’(1요한 4,8)
하고 알려 주시며, 또한 인
간의 완성과 세계 개혁의
근본 법칙은 사랑의 새 계
명이라고 가르치십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사랑을 믿는 이들에게 사랑의 길은 모
든 사람에게 열려 있으며 보편 형제애를 이룩하려는 노
력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십니다”(현
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
[Gaudium et spes], 38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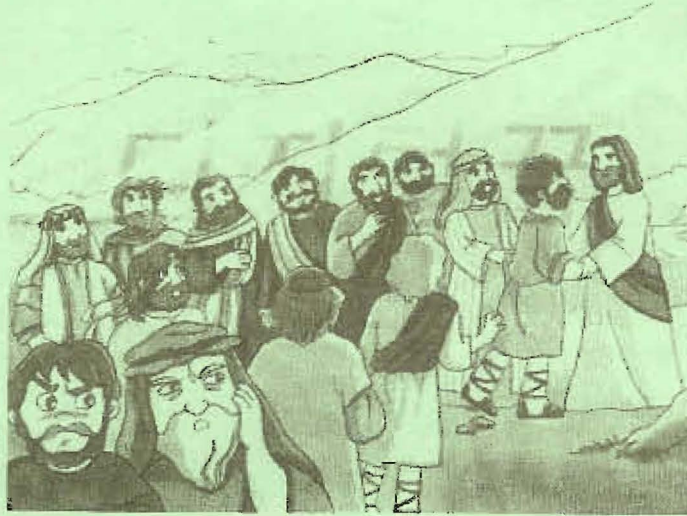
교회는 성체성사를 바탕으로 “천교”를 이룹니다. 빵과
포도주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사랑의
희생으로 교회를 당신 몸으로 세우시어, 우리를 삼위일
체의 하느님과 일치시키시고 우리도 서로 일치할 이루
도록 하십니다(1코린 10,16 이하 참조). 저는 교황 권고
「사랑의 성사」(Sacramentum caritatis)에서 “우리가
성체성사로 거행하는 사랑은 우리 혼자만 간직할 수 있
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본성상 모든 이와 나누어
야 합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입니
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뵈고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84항) 하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체성사
는 교회 생활의 원천과 정점일 뿐 아니라 교회의 사명
입니다. “진정한 성찬의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84항). 이러한 교회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
에게도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천교를 나누게 하
려는 것입니다.”(1요한 1,3)라고 자신 있게 선언하며 모
든 이가 하느님과 천교를 맺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음의 눈으로 선교의 광대
한 영역을 바라보는 이 전교 주일에, 우리 모두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는 주인공이 되어 복음을 선포합시다. 선
교 열정은 언제나 우리 교회의 생명력을 드러내는 표지
가 되어 왔습니다(요한 바오로 2세, 회칙 「교회의 선

교 사명」[Redemptoris Missio], 2항 참조). 지역

교회들은 상호 협력과
더불어 일치와 형제애
와 연대의 탁월한 증
언을 통하여, 구원하
는 사랑의 선포자들에
게 신뢰를 가져다줍니
다.

따라서 저는 모든 이
가 신생 교회들을 위
하여 기도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들에게 형제적이고 구
체적인 도움을 줄 것
을 거듭 권유합니다.
제가 감사하게 여기는
교황청 전교 기구의



소중한 봉사를 통한 이러한 사랑과 나눔의 활동이 오
지 선교 지역의 사제, 신학생, 교리 교사 양성에 보탬
이 되고 신생 교회 공동체들에 용기를 줄 것입니다.
이 전교 주일 연례 담화를 마치며, 저는 가장 외지고 힘
든 곳에서 때로는 목숨을 바치며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증언하는 선교사들에게 저의 특별한 사랑을 담아 감사
를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 선포에 앞장 서는 그분들에게
모든 신자는 친밀한 우의와 지원을 드립니다. 기쁘게 주
는 이를 사랑하시는 하느님(2코린 9,7 참조)께서 그들
을 영적 열정과 깊은 환희로 채워 주시기를 빕니다. 성
모님께서 “예” 하신 것처럼, 모든 교회 공동체가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하라는 하느님의 초대에 기꺼이 응답
하면 새로운 사도적 교회적 모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
다(갈라 4,4,19,26 참조). 이 모성은 사랑이신 하느님의
신비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때가 차
자 ……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인에게서 태어나
게”(갈라 4,4 참조) 하셔서 새로운 사도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응답은 모든 이가 하느
님의 계획을 깨닫고 “희망 속에 기뻐”(로마 12,12)하게
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온 인류가 하느님의 한 백
성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모여서 성령의 한
성전을 함께 세우도록”(선교 교령, 7항) 하십니다.

◆바티칸에서 교황 베네딕토 16세